

박정원 “반도체, 두산의 새 승부처”… 5년간 1조 톤 큰 투자

〈두산그룹 회장〉

두산테스나 사업장 찾아 청사진 밝혀
반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톱5 목표
CAGR 20% 고성장세 지속 전략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반도체 사업을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택하고 승부수를 던졌다. 두산그룹이 두산테스나를 ‘반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톱5’로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14일 경기도 서안성 소재 두산테스나 사업장을 방문해 이종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사업 현황 및 중장기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방진복을 입고 두산테스나의 주력 사업인 웨이퍼 테스트 라인을 꼼꼼히 살폈다. 웨이퍼 테스트는 반도체 칩이 새겨진 원형 웨이퍼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 받아 전기, 온도, 기능 테스트를 진행해 양품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박 회장은 이날 “반도체”는 두산의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이 두산테스나 서안성 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새로운 승부처로서 기존 핵심 사업인 에너지, 기계 분야와 더불어 또 하나의 성장 축이 될 것”이라며 “두산테스나가 ‘국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최고 파트너 기업’으로 자리잡고, 나아가 ‘5년 내 반

도체 테스트 분야 글로벌 톱5’로 성장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두산테스나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후 진행되는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국내 웨이퍼 테스트 분야 시

장점유율 1위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076억원, 540억원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주요 테스트 제품은 스마트 기기의 두뇌와 눈, 귀 역할을 하

는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카메라 이미지센서(CIS), 무선통신칩(RF) 등이다. 두산그룹은 지난 4월, 두산테스나를 4600억원에 인수했다.

두산테스나는 더욱 고도화되는 스마트폰 성능과 자율주행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1240억원을 투자해 테스트 장비를 추가로 들이기로 결정했으며, 2024년말 준공 목표로 신규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평균성장률(CAGR) 20% 수준의 고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시스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후공정 기업 중 글로벌 톱10 안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아직 없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후공정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테스트 장비,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내에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추가 진출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고품질 리뷰 열 리뷰 안 부럽다”… 유통가, 시스템 고도화 사활

구매에 영향… 다양한 시스템 접목
e커머스 커뮤니티화… 고객 록인효과

e커머스 기업들이 고객들의 리뷰가 제품 구매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치면서 리뷰의 고품질화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시도 중이다. 고객이 직접 작성한 고품질 리뷰는 구매전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사의 콘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 리뷰가 대량으로 축적되면 e커머스가 커뮤니티화 되는 경향까지 있어 고객 록인 효과도 특출히 한다.

리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e커머스 기업들은 단순 리뷰 작성에도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리뷰의 고품질화를 위해 큐레이션 메뉴, 동영상 리뷰, 커뮤니티형 리뷰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최근 e커머스 업계가 고객들의 실제 사용 후기 ‘리뷰’를 유도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활용하고 새로운 리뷰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에서 리뷰가 미치는 영향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다. 리뷰의 유용성은 상품과 기업의 신뢰 구축과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동아대학교의 주결 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리뷰 시스템의 형태는 온라인 리뷰 참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리뷰를 한 번이라도 작성한 고객은 리뷰 습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e커머스 기업은 리뷰를 활용해 자체 서비스 고도화에도 활용하고 이를 새로운 콘텐츠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커머스 업계가 고객들의 리뷰

에 사활을 걸고 계속해서 리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다.

실제로 리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면서 효과를 본 기업들도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최근 식품 카테고리 특성화 리뷰 서비스인 ‘쓱셰프’를 론칭했다. SSG닷컴은 ‘일반 리뷰’, ‘한달사용 리뷰’, ‘프리미엄 리뷰’ 등 다양한 리뷰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고품질 리뷰의 구매전환율이 높게 나타났다.

SSG닷컴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프리미엄 리뷰를 1월 론칭한 후 2월부터 4월까지 프리미엄 리뷰로 등록된 상품이 전월 대비 주문 건수가 평균 30% 올랐다. 새롭게 론칭한 SSG셰프는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작성한 리뷰를 다른 고객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리뷰 시스템과 SNS 속성을 결합했다.

11번가에 따르면 동영상 리뷰 시스템 ‘꼭꼭’은 하루 평균 1만5000건의 리뷰가 올라오고 있다. 꼭꼭은 구매자들의 동영상 구매 후기를 모아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리뷰 등록 건수는 460만 건에 이르는데 올해 상반기 이미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해 연말 1000만 건 가량의 리뷰 등록도 기대할 만하다.

11번가는 고품질 리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리뷰 랭킹’을 도입하고 리뷰를 통해 다른 고객들에게 도움을 준 리뷰어들을 신상리뷰단으로 선정, 신상품을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더불어 고객이 직접 쇼핑 콘텐츠를 제작해 등록하는 ‘팁톡’ 서비스를 론칭했다.

GS프레시몰은 15일 ‘리뷰 전문가’를 신설했다. 리뷰 전문관은 전카테고리를 대상으로 리뷰가 많은 상품 중 별점 4개



GS프레시몰이 고객 후기가 많은 우수한 상품을 선별해 추천하는 ‘리뷰 전문가’를 론칭했다. /GS프레시몰

이상(5개 만점)을 받은 상품 100여 종을 선별, 추천하는 서비스다. 리뷰, 별점 분석은 일주일 단위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리뷰 전문가’ 상품은 자동 업데이트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이슈 상품 정보를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알찬 상품도 발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뷰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개발도 가능한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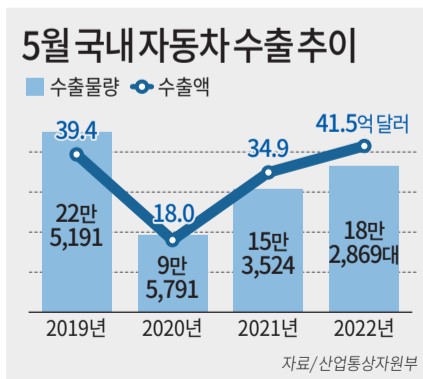
반도체 수급난에도 車 수출, 두 자릿수 증가 퇴직연금 수익률, 선진국과 최대 4배 차이

수출액,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

지난달 자동차 생산과 수출 대수, 수출액이 1년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가 선전하며 전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저해효과를 뛰어넘은 성과다.

내수는 출고 적체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친환경차 호조에 힘입어 판매 대수로 보면 올해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8.9% 증가한 41억5000만달러(약 5조 3500억원)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자동차 수출액은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해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1번 ‘분산투자로 연금부자’서 계속

국내 퇴직연금 대부분 원리금 보장

해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수많은 연금부자 양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6년 401k의 자동가입제도를 도입하면서 적격디폴트상품(QDIA)을 지정했다. 영국도 2008년부터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과 동시에 한 개 이상의 디폴트옵션을 의무화했다. 호주 역시 디폴트옵션을 적용한 ‘마이슈퍼’를 계기로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등 4개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모두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국내와 해외 연금 선진국과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의 지난 2013~2019년 퇴직연금 수익률 연 평균이 각각 9.49%,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의 5년 연환산 수익률이 1.96%에 불과했다.

국내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

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6.4%에 달하는 255조4000억원이 대기성자금을 포함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과 펀드 등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실적 배당형은 40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13.6%에 그쳤다. 운용방법별로는 5년 연환산수익률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이 각각 1.59%, 5.18%이지만 원리금 보장형이 대부분이라 평균 수익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 디폴트옵션은 원리금 보장상품도 고를 수 있는 만큼 수익률 제고라는 당초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디폴트옵션에서 원리금보장형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영석 기자 ysl@